

2022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2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2. 7. 7.(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심의	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비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비공개
4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비공개
5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이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비공개
6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심의	비공개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비공개

【검토사항】

1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비공개
---	--------------------	-----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지식 2022-02-001

1.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한복 입기’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한복생활’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1.4~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1.1.26.)
-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관련 자문회의 실시(’21.3.5.)
-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1.4.29.~11.23.)
- 2022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차 회의 검토(’22.3.15.)
-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22.3.24.)
-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의견 수렴(’22.3.24.~3.23.)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4~11월
- 조사기관 : 더랩 씨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결과

- 총점평균: 93.26점(100점 만점)
- 조사자별 점수

조사자	A	B	C	D	E	F	G	총점평균 (최고·최저점 제외)
평가점수 (100점 만점)	90.80	84.80	100.00	98.50	95.00	93.00	86.50	93.26

4)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한복 입기’를 지정함.
-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순서, ▲격식을 갖추 때에는 두루마기 등을 갖춘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의미함.
- 다만, 전통생활관습으로서 한복입기를 지정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수장, 참선장 등 기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직물·복식 공예(16종목)* 관련 내용은 제외함.
- * 갓입,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 셋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망건장, 탕건장, 자수장, 명주짜기, 바디장, 침선장, 누비장, 염색장, 화해장, 금박장,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조사>

구분	요약
역사성	○한복(韓服)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옷으로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포(袍)를 덧입으며 머리모양·관모(冠帽)·화(靴)·장신구로 치장함. 흔히 조선시대 중·후기에 유행했던 형태의 옷을 이를 때가 많지만,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착용해 온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의 2부식을 기본 구조로 하여 계통적으로 이어진 의복이기에 우리 민족의 사상·관습·행위·형태·기술 등의 양식과 정신이 깃든 복식(服飾)이라 할 수 있음.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 온 양복(洋服)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움. -다만 1894년 5월 2일자 일본 신문 《二六新報》의 ‘조선잡기(朝鮮雜記)’ 기사 내 ‘양복(洋服)’, ‘화복(和服, 일본식 옷)’ 용어와 함께 ‘한복(韓服)’이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점, 1881년 5월 22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

구분	요약
	記)』 기사에 ‘조선의(朝鮮衣)’가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사서(四書) 등 관련 유물 및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한복을 착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는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임. 스키타이계 복식의 구조적 특징과 중국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유의 복식 착용문화를 형성함. 이미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옷을 착용하는 복식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어 관복(官服)과 평상복과 의례복을 구분하는 복식문화가 형성됨. ○통일신라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복식에 당나라의 영향을 수용하여 새로운 복식문화를 만들었고, 성별을 구분한 복식제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복식금제령(服飾禁制令)을 통해 신라부터 이어진 위계질서에 따라 복식제도를 정비함.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의 복식을 토대로 새로운 외래 복식문화를 수용하고, 직물의 문양과 색채가 화려해지고 다양해진 시기임. ○조선시대에는 우리 복식의 전형(典型)을 확립한 시기임.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로 의복 명칭의 변화, 치마·저고리의 형태가 변화됨. 의복 명칭의 변화는 상의인 유(襦)가 저고리(赤古里), 하의인 고(袴)는 바지(把持), 군 또는 상은 치마(赤々)로 바뀌었고, 포는 형태에 따라 액주름, 철릭, 창의, 중치막, 대창의, 심의, 학창의, 두루마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음. 치마저고리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던 저고리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아지고 좁아졌으며, 길고 풍성해 허리에 둘러 입던 치마는 가슴 위로 올려 입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바뀜. ○개항기에는 갑신의복개혁령(1884년)으로 모든 품계의 관리들이 흑단령(黑團領)을 입게 되고 다만 흉배(胸背)로서 품계를 나타내게 하였는데, 이는 신분 계급 타파에서 온 평등사상이 그대로 복식에 나타난 것임.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어 문관예복으로 양복을 입게 함으로 인해 이 시기 이후부터는 수천 년 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되기에 이룸. ○현대(1980년대)에 이르러 한복은 실용적 소재와 모시·삼베 같은 천연 소재가 유행하였고, 일상생활에도 쉽고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생활한복’이 점차 일상복으로 보급되기 시작함.
	○한복을 통해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인 의생활 변화에 대해 종합적

구분	요약
학술성	이해가 가능함. ‘한복’이란 넓은 개념부터 시작하여 ‘한복문화’, ‘한복착용’, ‘한복 입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재료·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시간이 갈수록 부문별 연구내용이 보다 다양하고 깊어지는 추세임. 이는 곧 한복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입고 생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전승, 한복과 관련한 다양한 관심과 향유 등 한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 전반에 다채로운 문화로 확산해 갈 것이라 여겨짐. ○한복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역사 및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한 한복에 대한 학술연구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며 학술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해 왔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곧 한복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을 짐작하게 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 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한복입기’와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연구 역시 더욱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됨.
대표성	○복식에서 고유성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유일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를 거치면서도 민족과 지역의 생활·풍토에 맞춰 서서히 그 민족과 지역 복식의 변별적 특성을 지닌 양식으로 정착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음. ○무형문화재로서 ‘한복입기’의 고유성은 곧 한복이 가진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2부식 구조’, ‘착용 방식’, ‘웃고름’인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형성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통합적 모습, 한복 고유의 양식으로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우리의 복식은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북방계 복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번의 전란과 외교관계 등의 영향으로 왕실과 관리들의 복식의 경우 넓고 큰 중국식 예복용 포가 도입됨. 그러나 평상시에 입는 편복(便服)이나 서민의 복장은 삼국시대 이래 전통양식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전승환경 조사>

구분	요약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안 부녀들이 손수 바느질 해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

구분	요약
사회문화적 가치	‘단오빔’·‘추석빔’이라 불렀음. - 설빔의 경우, 가족 모두 새 옷을 장만하여 입었는데 남자는 바지·저고리·두루마기를, 여자는 치마·저고리·두루마기를 장만하고 여기에 남자는 덧저고리를, 여자는 배자를 추가하기도 하였음. 설빔이 경우 복색에도 차이가 있어 성인 남자는 주로 흰색을 하고, 성인 여자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두었는데 젊은 여자는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결혼한 여자는 초록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나이든 여자는 주로 남색치마에 옅은 색 저고리를 입었고, 어린아이들은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색동옷을 입었음. - 단오빔의 경우 “소녀들이 청홍의 새 옷을 입었다.”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신윤복(申潤福, 1758~1814)의 풍속도 화첩 <단오풍정(端午風情)>에서도 단오 때 여인들의 의복을 확인할 수 있음. 어린아이들은 단오에도 색동옷을 많이 입었는데, 특히 두루마기에 색동소매를 붙이는 것을 ‘까치두루마기’라고 하여 까치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닮기를 소망하기도 함. - 추석빔의 경우 새로 옷을 지어 입고 신발도 갖추어 신었음. 추석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점이어서 겨울옷을 새롭게 장만하려는 이유도 있었는데,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새로 장만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음. ○특히 선달 그믐날 밤 집안 어른들께 묵은세배를 올리거나 돌아가신 분의 상청(喪廳)이 마련된 경우에도 음식과 함께 설빔을 지어 올렸는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음.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입기’는 설·추석 등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그 근간이 현재에도 지속·유지되고 있음. 이 중 결혼식과 제례 때 갖추는 복식의 예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편이지만 상례 때 고인에게 입히는 수의와 상주가 입는 상례 복식의 전통은 그 형식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 - 출생의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배냇저고리는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가 착용하는 최초의 저고리를 의미하고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닿기 때문

구분	요약
	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해서 가능한 한 술기를 적게 하여 지었음. - 돌을 맞이한 아이가 입는 돌복인 오방장두루마기는 몸판에 오방색을 배치하였는데, 남자아이는 깃과 고름을 파란색으로 여자아이는 자주색이나 다홍색으로 했음. 이 때 오방장두루마기의 소매를 색동으로 달았을 경우에는 '까치두루마기'라고 하였음. - 혼례 복식 중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차려 입고, 신부의 혼례복은 일반적으로 머리에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겹옷으로 활옷이나 원삼(圓衫)을 착용하였음. 특히 원삼은 궁중에서는 신분에 따라 황색, 홍색, 자적색, 녹색 등의 차이를 두었는데 일반인의 혼례에는 녹색원삼을 착용함. - 혼인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회혼례(回婚禮)에는 신랑 신부가 혼례 때 복식인 사모관대와 족두리, 원삼을 착용하였음. - 상장례에서 망자(亡者)에게 입히는 수의(壽衣)는 윤달[閏月]에 짓는 관습이 있음. 윤달은 여벌달·공달 또는 덤달이라고 여겨 보통달과 달리 걸릴 것이 없는 달이고, 탈도 없는 달이라고 하여 윤달은 모든 일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윤달에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장수(長壽)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 때 수의는 바느질의 매듭을 짓지 않음.
지속 가능성	○한복은 전국적으로 생산자(한복을 짓는 기술자 등)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특히 한복 대여점을 비롯하여 지자체별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은 대외적인 전승활성화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지표임. ○특히 한복입기는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오늘날에도 설, 추석과 같은 명절 및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에 그 복식을 갖추입는 등 관련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되고 있음.

<조사자별 검토의견(요약)>

구분	요약
A	○한복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옷을 말하는 것으로써, 의복의 착용은 골침과 방추차 등의 유물로 미루어 보아 신석기 시대부터 입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음. 이후 청동기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제(褸袴制)의 고유한 복식을 갖추었으며, 이후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옷의 종류와 형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함. 이렇듯 한복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구분	요약
	의복으로 전승된 기간이 오래되었으며 단절되지 않고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복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의복으로써 다른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고대부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의인 바지나 치마를 입은 후에 의를 착용하는 것임. 이것은 의를 입은 후에 치마를 착용하는 중국의 착용법과 차이가 있음. 이후 상호 간의 문화 영향으로 변화도 있었으나 이러한 착용법은 우리 의복의 고유성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음. 또한, 고려시대에는 동정을 달게 되었으며, 의가 삼국시대에 비해 짧아지고 여밈이 깊어짐에 따라 대를 대신하여 생겨난 고름은 시대에 따라 길이와 너비가 변화하는 등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의복만의 독창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한복은 현재 명절, 결혼식, 돌잔치, 수의 등에 착용할 뿐만 아니라 궁에 입장할 때나 전주 한옥 마을과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복으로 입고 있음. 또한 교복이나 근무복으로 착용하고자 시도되는 등 일상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이외에 한복의 올바른 착용법 등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젊은 세대도 많이 생겨나고 있음. 이처럼 한복생활(한복입기)은 전승 주체가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학교와 관련 기관 등에서 교육을 통한 전승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음.
B	○한복의 역사적 근거는 문자 기록, 벽화를 포함하는 그림, 사진자료, 실물의 존재가 다량으로 확인되므로 탁월한 것으로 평가함. ○한복에 관한 연구는 1천 건 이상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이 작성되었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가 매우 탁월하다고 판단함. ○한복의 착용 방식은 17~18세기 무렵에 완성된 이후 한국인의 의생활 문화로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예절과 격식이 필요한 의례에서 관습적으로 계속 착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복은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바가 탁월하다고 평가함.
C	○우리나라 의식주 생활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한복과 관련된 문화는 한국 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다른 부분의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한복과 한복입기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고유성을 만들고

구분	요약
	유지해왔으며, 이는 한민족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 ○한복과 한복입기는 2부제, 착용 순서, 옷고름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지만 시대를 거치며 변화하고, 한 시대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 왔음.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한복입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디자인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즐겁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D	○한복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민족복식으로서의 기본구조가 완성되었으며, 현재 전승된 한복의 구조(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와 형태만으로도 500년 이상 되었으며, 현재 한복의 형태의 원형이 된 기본 구조로 전승된 기간은 2천년 이상, 복식문화의 시작은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의례와 일상을 구분하는 복식의 이중구조의 문화가 정착되며, 의례복은 국내외적인 교류에 의한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였으며, 일상복은 기능적인 부분과 고유성을 확보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전통한복의 계승과 생활한복의 일상화를 그 축으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형성되고 있음. 전승된 전통을 현대의 흐름에 맞추어 반영하고 있으며, 설·추석 등의 명절과 단오, 한식 등의 세시풍속에 따른 한복의 착용문화 및 태어남과 죽음의 의례를 함께하고 인생의 화려함과 축복함을 담은 평생의례 또는 생애주기에 따른 한복착용에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겨 있음. 관련 공동체 기술의 역사성(모시, 삼베, 명주 등)과 두레를 통한 노동품앗이(수의, 혼례복 등), 재료(전통직물생산) 생산에 대한 지역특화(진주실크, 상주명주, 한산모시 등), 종교와 민속문화에 기인된 착용문화, 한복착용 매니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한복입기 문화 활성화(한복데이, 한복의 날, 한복사랑의 날 등)가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시·도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명장 제도, 국가공인자격기술제도 등 국가차원에서의 기술을 전승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및 한복착용(교복, 근무복 등)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집중하고 있는 상황, 민간주도형의 경우 한복업체의 민간단체 및 연합회, 한복전문학회,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형 공방 등의 활동이 있음.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문체부)이 지역거점화 및 한복문화지역특화를 통한 한복분야 종사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E	○한복의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바, 한국의 복식문화에 관련된 본 연구 조사는 한국문화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요약
	○한국의 문화 특히 복식문화는 중국과의 교류가 강력하였기에 순수한 고유성이라기보다는 중국문화를 수용하면서 재창조된 고유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유성이 인정된다 판단됨. ○한복은 현재적인 특징이 강력하다는 측면에서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F	○세계 경제 강국 중에서 21세기 산업사회와 전통복식이 공존하면서 변화,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실 생활에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형태로 민족복식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 다만 민족의 뿌리와 관련된 조선족, 북한 한복이 형태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 ○한복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 및 명장 제도 등은 타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편임. 관련 무형문화재는 전통에 입각한 한복 문화 및 전승 교육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명장은 한복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 전승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창의성 부분은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음.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MZ세대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신진 디자이너들의 활약 등 전승 활성화 기반이 갖춰져 있으나 한복생활의 전승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착용에 대한 의지와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기회를 통한 착용 유도 및 한복과 엔터테인먼트를 겸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G	○한반도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한복 관련 역사는 단절 없이 전승·유지되고 있음. ○한복의 미래는 한국인의 의례복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K-컬처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노출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학술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보다는 문화콘텐츠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임. ○우리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자료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있음. 이러한 분야에서 보여 지는 한복의 빈도수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극드라마와 현대드라마의 비교도 좋을 것이고 사극드라마에서도 시대별 드라마의 비교 또한 한복의 다양성 및 창의성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한복은 우리나라 의식주(衣食住)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한복과 관련된 문화는 한국 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한복은 전통한복의 계승과 생활한복의 일상화를 그 축으로 하여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 한복은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설·추석 등의 명절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종교의례를 비롯하여 각 의례별로 입는 한복은 해당 의례별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 최근에는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MZ세대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패션계의 신진 디자이너들의 한복 디자인과 활용 등 ‘한복입기’의 전승 활성화를 기반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착용을 유도하는 공적 기회 창출이 이어지고 있음.
- 예로부터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로 그 의미를 지니고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음.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한복 입기’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종목만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1.1.26.) 시에는 ‘한복 생활’로 검토하였으나, **다양한 계기·용도에 따라 한복을 입는 관습과 한복 착용 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의 의미·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 ‘한복 입기’를 종목 명칭으로 제안함.**

5) 지정 예고 기간('22.3.24.~4.23.) 의견 제출 현황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 지정 명칭 등을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심의할 내용 :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결과표 1부
2.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보고서 1부(별도 첨부)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결과표

조사 항목 (배점)	조사 지표 (배점)	세부지표(배점)	평가자							총점	평균
			A	B	C	D	E	F	G		
전승 가치 (65점)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10.00	9.00	10.00	10.00	10.00	10.00	8.00	49.00	9.8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8.00	8.00	10.00	10.00	10.00	9.00	8.00	45.00	9.00
	학술성 (15점)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	7.20	7.20	8.00	8.00	8.00	8.00	7.20	38.40	7.68
		학술연구자료로서의 가능성(7점)	5.60	5.60	7.00	7.00	7.00	7.00	6.30	32.90	6.58
	대표성 (30점)	고유성의 수준(15점)	13.50	13.50	15.00	15.00	13.50	13.50	12.00	69.00	13.80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기능성(15점)	15.00	12.00	15.00	15.00	13.50	15.00	13.50	72.00	14.40
전승가치 소계			59.30	55.30	65.00	65.00	62.00	62.50	55.00	306.30	
전승 환경 (35점)	사회문화 적 가치 (20점)	관련 공동체·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15점)	13.50	13.50	15.00	13.50	15.00	13.50	13.50	69.00	13.80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4.50	4.00	5.00	5.00	4.50	5.00	4.50	23.50	4.70
	지속 가능성 (15점)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15점)	13.50	12.00	15.00	15.00	13.50	12.00	13.50	67.50	13.50
전승환경 소계			31.50	29.50	35.00	33.50	33.00	30.50	31.50	160.00	
합 계			90.80	84.80	100.00	98.50	95.00	93.00	86.50	466.30	93.26

* 총점 및 평균은 조사자의 각 지표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것임(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4.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5.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이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6.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검 토 사 항

1.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